

“일반인 포용 프로그램 시급”

전·현직 방송인 'BBS·btn 발전안' 논문발표

연령·직업·성별 특화 편성해야 불교뉴스 확대... 청소년 심야프로도

다매체 다채널시대에 불교방송과 TV가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BBS와 불교TV의 시·청취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용자(청취자·시청자)층과 결합하는 방송환경에 대처하는 차별화·특성화된 편성 전략, 참신한 출연자 발굴, 체계화된 불교뉴스 시간의 확보가 필요하다.

현재 방송사에 있거나 방송에 종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정·현직 방송 관련인들은 방송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한 '97 석사학위 논문'에서 BBS와 불교 TV의 발전방향을 이와 같이 강조했다.

신진욱법사(대한불교진흥원 불교문화센터)는 'BBS 청취자의 수용자 특성에 관한 연구'란 논문에서 "불교방송의 청취대상은 93%가 고졸이상의 높은 학력의 소지자들"이라 분석하고 "이들을 흡수할 수 있는 전문화된 고급

프로그램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개편 방향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신씨는 "종교방송이라는 한계상 단조롭기 쉬운 프로그램을 보다 세분화해 특화하고 비전자들도 관심을 가질 흥미로운 종교소재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종교방송의 특성을 살리는 불교뉴스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현재 BBS와 불교TV의 1일 불교관련뉴스 편성시간은 20분미만으로 더욱 늘여야 한다는 것.

청취자들이 정오이전에 불교방송을 가장 많이 듣고 있는 점에 착안, 이시간대의 다양한 프로그램 편성과 20대 이하의 젊은이들을 겨냥한 심야 프로그램 신설에 힘써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BBS보도국 진진수 차장은 '불교방송의 청취행태에 관한 실증적 연구'란 논문(연세대 언론대학원)에서 시간대별

편성전략을 강조했다. 또 대부분의 불교방송 청취자들은 방송 내용보다는 마음의 평안과 신명생활을 위해서 듣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밝혀 포교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덧붙여 출연하는 케이블TV 프로그램들 속에서 불교TV가 생존하기 위한 전략은 프로그램의 차별화, 이력 맥락에서 불교TV의 '선재스님의 푸른맛 푸른요리'는 현대인의 음식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좋은 프로그램이고 타 방송사의 생활정보 프로그램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고 한상희(前 불교TV PD)씨는 집중 분석했다.

한씨는 논문(동국대 정보산업대학원) '케이블TV의 프로그램 특성과 사례연구'를 통해 "다매체 다채널 시대에 불교TV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시청자들의 연령, 학력, 직업, 성별 등을 파악한 프로그램 차별화가 관건"이라며 "선재스님의 푸른맛 푸른요리"와 같은 프로는 적은 제작비에 비해 다수의 시청자를 확보함으로써 불교TV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김주익 기자



◇신진욱씨



◇신진수씨



◇한상희씨

“한파에 언 가슴 녹여줍니다”

BBS '살며 생각하며' 인기 상종가

서울·대구·청주 인생상담 호응 커

“스님! 저는 노동일을 하는데 요즘 IMF 한파 때문인지 알자리가 없어 속상합니다.” “거사님! 절망되어 찾아오는 것은 희망이지요. 일체유심조의 말을 새기며 용기를 잃지 마세요.”

애잔한 삶의 이야기를 상담형식으로 전해주고 있는 불교방송의 장수 프로그램 '살며 생각하며'가 대구와 청주BBS에까지 발을 넓혀 인기를 더해가고 있다. 매일 밤 12시10분부터 2시까지 110분간 방송되고 있는 '살며

생각하며'는 9월부터 현재스님(원주 성불원주지)이 다시 진행을 맡고 있으며, 대구BBS는 재법스님(불교대구방송 기획위원), 청주BBS는 권은이 아나운서가 차분하면서도 재치있는 화술로 고민 보따리를 풀어놓는 청취자들 어루만져 주고 있다.

주 청취대상을 청소년에서 중장년층으로 넓혀 전화 상담형식으로 새 단장한 불교방송의 '살며 생각하며'(PD 한지은)는 상담 외에도 새벽 일터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



◇한상희님



◇재법스님



◇권은이씨

를 전해주는 '새벽현장을 찾아서'와 명사초청 '토요초대석' 코너를 신설, 심야 청취자들의 주파수를 고정시키고 있다.

대구BBS의 '살며 생각하며'(PD 박재현)도 '불교 명상 메시지', '불교문학소개', '염서사연 소개' 등에 힘입어 하루 50여통의 전화와 엽서 등이 뒤를 따라오고 있다.

권은이 아나운서의 고운 음성으로 진행되는 청주BBS도 '황재

연의 랑스 토티', '영화이야기', '음악치료사', '원담스님의 결망 이야기' 등 요일별로 다양한 주제를 방송하여 인기를 높여가고 있다.

같은 포맷이지만 재각기 다른 색깔로 방송포교에 나선 '살며 생각하며'는 풍부한 들을거리와 편안한 밤의 휴식을 제공해 매서운 경제한파에 지친 불자들의 심신을 따사롭게 녹여주고 있다.

신행수기 당선작

특별상(중단협회장상)

아니, 미국까지 와서①

일

주일 간격으로 배달되어오는 성경 구절이 적힌 예쁜 카드. 한두번은 무심코 받아 보았다. 수신인의 주소도 이름도 없는 카드는 회가 거듭될수록 누가 이 카드를 보내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다.

나는 뉴욕에서 조그만 옷가게를 하며 이곳 불교단체에서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을 3년째 한주도 빠지지 않고 해오고 있다. 전화상담과 설법테이프를 원하는 분들에게 보내는 일도 겸하고 있다. 또 스님을 모시고 법회도 보며 경

은 재능을 주셨잖아요. 교회에 나와 보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개종을 강권한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안내심으로 살뜰히 지켜보며 여유있게 웃을 수 있었다.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심을 가까이 하며 몸소 체득하지 않았다면 전대기 어려웠을 것이다.

내가 운영하는 가게의 손님이 8년여를 묵묵히 찾아주시며 "언젠가는 하나님 앞으로 오길 기도한다"는 집사, 위험도 서슴지 않는 열성과 신자에 이르기까지 내게 하는 정도 행태는 다양하다.

“인간부처를 만나니 하나님 자녀로...” 개종권유 집요



그림·이준석

이웃 미국에서 한국 기독교인들의 적극적인 전도활동을 나열하면 정말 끝이 없다. 그 예로 내가 어디서 비롯되는 것인지, 불자들의 포교는 미미한 상태인 것으로 미뤄볼 때 같은 한국인인데도 그렇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연구해 볼만한 과제이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극도의 물질만능주의로 인해 황폐해진 현대인들의 정신적 위안처로 불교가 큰 몫을 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지성인이나 예술가 연애인 등 상류층이 비폭력적인 평화운동의 선수로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내세우고 있다. 영적의 조건으로 물질적 중요성을 주려온 그들이 물질 만능의 허영을 간

파하고 정신적 육구를 불교의 진리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없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종교가 불교라는 점을 깨닫고 보자면 세상을 위해 창조적인 일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불교공부에 심취하는 것이다.

현재 미국의 만여개가 넘는 대학에서 불교를 가르치고 있고 학문적 연구도 활발하여 불교의 대중화가 확산되어가고 있다. 미국에서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대에 앞서고 현실적이며 지성인으로써 평화주의사상에 발맞춰 나가는 신세대 감각에 걸맞는 일로 여겨지고 있다.

어느 기독교 권사는 "자매님은 웬만해선 안 될 것 같아 제가 백일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 나세요"라며 모진(?) 권고와 회유와 협박(?)을 했다. 공에 계시를 받았으며 나를 하나님 걸음으로 인도하기로 마음먹고 찾아오신 집사도 있었다. "아니 그 욕소리, 그 실력으로 성령의 말씀을 전한다면 평야와 돈이 굴러들어 올텐데, 참 어리석기도 하군요"라는 어느 교회장로의 안타까워 하는 말씀.

"아유 이렇게 친절할 젊은이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니 이해가 안가우"라던 상담에 다니시는 어느 할머니. "아깝기도 해라. 아니 무슨 헛고생 하는 거예요. 요즘같은 시대에 인간부처를 믿고 있구나. 젊은 분이 아깝네, 쫓겨..." "위낙 받고 한결같이 상냥해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자매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많

김연장 (미국 뉴욕시 거주)

PCS 016, 4월중 3,400개의 기지국 확보! - 완벽한 전국통화시대를 열어갑니다.



귀의삼보하옵시다.

선착순 500대 한정판매

기간: 2월 23일~3월 7일

부다피아 포교기금 마련

PCS 016 특별할인판매

통화료의 5%가 통일포교와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사용되는 「부다피아 포교기금」 조성을 위해 스님들과 종무원을 대상으로 특별할인판매합니다.

삼성애니콜

SPH-1100

최적의 통화품질
최첨단 PCS 기술발전과 최적 S/W 구성으로 깨끗하게 통화할 수 있습니다.
최초의 한글 LCD재현
초정전 회로구성 및 최신 배터리의 기술로 최상의 통화시간을 보장합니다.
견고성
심한 외부 충격에도 손상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 크기: 129x51x25mm
● 무게: 151g
● 연속 통화시간: BHE421 S 110분 / M 180분 / A 300분
● 연속 대기시간: BHE421 S 32시간 / M 63시간 / L 103시간

삼성애니콜

SPH-2000

유일한 음성다이얼PCS
명만 하면 바로 전화가 걸려 온전에도 안전합니다.
최상의 통화시간
2셀방식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세계 최장의 연속대기 103시간, 연속통화 300분을 실현
고음질 시스템으로 또렷한 통화품질
오디오 전용 음성 증폭기 및 고주파 증폭용 음성 소프트 웨어를 채용하여 또렷한 음성 통화 가능합니다.



● 크기: 129x51x25mm
● 무게: 151g
● 연속 통화시간: BHE421 L 305분
● 연속 대기시간: BHE421 L 103시간

신·청·안·내

- 대상: 스님 및 사찰 종무원
- 가입조건: 24개월 의무가입, 통화요금 은행 자동이체
- PCS 폰 선정방법:
 1. 단말기 대금을 지정계좌로 입금 후 주문 (신청서 참조)
 2. 은행입금시 신청자 명의로 입금 바랍니다.
 3. 신청서 가입신청서와 무통장입금증, 승려증 또는 신분 확인서를 현대불교신문사 「포교기금 부다피아」로 우편 또는 FAX 접수 바랍니다. (신청서 참조)
 4. 폰, PC뱅킹 이용시 입금일, 입금자명, 은행명, 입금액을 신청서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1. 신청서의 신청인 남에 서명이나 날인이 없을 경우 접수 불가.
 2. 통화요금 자동이체시 신청인과 예금주가 반드시 동일해야 합니다.
 3. 우편접수시 3월 7일 자 소인까지 유효함.
 4. 가입신청서와 무통장 입금증이 접수되는 순서대로 PCS폰이 택배로 배달됩니다.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국민은행	006-01-0783-279	현대불교신문사
농협	053-01-236053	현대불교신문사
우체국	010041-0289770	현대불교신문사

신청서 접수처
우편번호 110-170 서울시 종로구 전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부다피아 포교기금」
☎ : (02)732-1522, 737-8881
FAX : (02)737-0697
737-0698, 0696

PCS 016 가입신청서

고객명	신청인명	☐ 삼성 SCH-1100 ☐ 삼성 SPH-2000
주민등록번호	요금청구지	☐ 자택(법인) ☐ 직장
고	지역(법인)	☐ () -
주	주소	☐ () -
사	중단명	☐ () -
할	사할주소	☐ () -
일	물건대당주소	☐ () -
생	일	19년 월 일(영.음)
성	이름	☐ () -
자	동	☐ 은행명 ☐ 주민(사업)등록번호
이	체	☐ 예금주명 ☐ 계좌번호
납	기일	☐ 25일 ☐ 27일
회	당전화번호	1) 2) 3) *당지리 4자리만 기입(국민, 특수번호 제외)
가	입 조 건	2년이상 의무사용, 사용요금 자동이체조건(예금주는 신청인과 동일해야 함)

약정서

본인은 상기와 같이 PCS 016 가입을 신청하며, 회사가 판매보증금을 부담하여 할인 공급하는 PCS 폰을 구매함에 따라 PCS 016 이용 약관 제 22 조 제 2 항에 의거, 가입한 날로부터 2년간 명의를 변경하거나 해지하지 않으며, 만약 2년 이내 명의를 변경하거나 해지 시 다음과 같은 공시에 따른 위약금을 한국통신(주)에 지급함을 약정합니다.

☞ 위약금 = ₩350,000(회사보증금) × (730일 - 사용일수) ÷ 730일

신청인: (인)

한국통신(주) 귀하

자르신

그동안 불자여러분의 성원으로 마련한 부다피아 포교기금 1차분 ₩3,000,000을 2월 23일 소책세마을로 전달했습니다. 계속 성원 바랍니다.